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第16卷 第2號 2007年 12月 31日

『證脈方藥合編·活套針線·虛勞門』에 나타난 心虛 처방에 대한 연구

최근조·강정수*

Study on the Chapter of Heart Deficient Prescrition in Mai-zheng-fang-you-ge-bian(脈證方藥合編)

Geun-Jo Choi, Jung-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Xu-lao(虛勞) is deficient disease which is weak body and spirit. It occurs many symptoms, for example lack of appetite, dizziness, involuntary emission of semen, wet dream, back and chest pain, night sweat, cough and so on. In oriental medicine, xu-lao(虛勞) is well-known disease and can be treated easily. In general, xu-lao (虛勞) patiences like to be treated by oriental medical doctors.

In spite of improving food, house and clothes, xu-lao(虛勞) is on the increase by fatty foods and stress. In most of these cases, the cooperations of heart and kidney are hurted.

On Fang-you-ge-bian(脈證方藥合編) which is the famous prescription book in Korea, gu-an-xin-shen-wan(古庵心腎丸) and Jiu-yuan-xin-shen-wan(究原心腎丸) are used well and have good effects in these cases.

Gu-an-xin-shen-wan(古庵心腎丸) can treat white hair, palpitation, involuntary emission of semen, amblyopia, buzzing in the ears, backache and so on. Jiu-yuan-xin-shen-wan(究原心腎丸) can treat lack of appetite, dizziness, involuntary emission of semen, wet dream, back and chest pain, diseased sweat, cough, coldness of hands and feet, and so on. The symptoms of Gu-an-xin-shen-wan(古庵心腎丸) are similar with those of Jiu-yuan-xin-shen-wan(究原心腎丸). But, it is very important that Gu-an-xin-shen-wan(古庵心腎丸) can be used in cases of hot deficient disease but Jiu-yuan-xin-shen-wan(究原心腎丸) can be used in cases of cold deficient disease.

Key words : Mai-zheng-fang-you-ge-bian, Xu-lao, Jiu-yuan-xin-shen-wan, Gu-an-xin-shen-wan

Ⅰ. 서 론

虛勞란 虛損이 極하여 나타나는 神과 形이 피폐해지는 虛證이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하여 풍부한 영양공급에 양질의 의복, 안락한 주거환경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고량진미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虛勞가 多發한다. 虛勞는 서양의학에서는 처치하기 힘든 韓醫學의 독특한 영역으로 환자들의 인식 또한 韓醫學을 선호하는 편이다.

점점 복잡해져만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에 의한 傷心과 고량진미와 절욕하지 못하는데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 교신저자 : 강정수 · E-mail : omdkjs@dju.ac.kr
· 채택일 : 2007년 11월 10일

서 오는 傷腎에 의하여 心腎의 교류에 이상이 발생하여 파생되는 虛勞환자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현재 임상에서 빈용되고 선호되는 처방집인 『方藥合編』의 「活套針線·虛勞門」을 보면, 虛勞란 내인성 내과질환으로 虛(氣·血·津液不足)로 인하여 피곤한 탓으로 식욕부진·정신혼미·유정·몽설, 허리·등·가슴·옆구리·근육·뼈 등이 당기며 아프고, 潮熱·自汗하고, 담이 성하고 해수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였고, 그 중 심장이 허하고 혈기가 부족하여 心虛에 의한 虛勞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古庵心腎丸·究原心腎丸 등 '心腎'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처방을 제시하였다[1].

이에 虛勞의 원인, 心腎의 작용과 협조관계를 통하여 心腎을 같이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살피고, 古庵心腎丸과 究原心腎丸이 처음 기재된 原著에서의 適應症을 살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 心腎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小得한 바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Ⅱ. 본 론

1. 『方藥合編·活套針線』 虛勞門의 心虛方

1) 『方藥合編』

민족의학의 발전은 조선시대에는 통치자의 적극적인 지시 하에 『鄕藥集成方』, 『醫方類聚』 등이 간행되어 자주적인 민족의학 형성에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고, 『東醫寶鑑』이 완성됨으로써 완전한 민족의학 수립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東醫寶鑑』의 광대하고 번복되는 중첩을 제거하여 그 要를 簡易化한 『濟衆新篇』이 간행되었고, 여기에 의학적인 내용을 더욱 축소하고 簡易化하여 민족의 주체성이 담긴 실용적 치료에 근간을 둔 『方藥合編』이 간행되었다[2].

『方藥合編』은 黃度淵이 아들인 黃泌洙에게 上·中·下統으로 분류된 醫方인 「醫方活套」와 34類 514種의 약물을 기재한 「損益本草」를 合한 후 몇가지를 첨가하도록 하여 완성되었다. 후에 제자인 玄公廉이 「雜病提綱」과 病症에 따라 藥方을 쉽게 運用할 수 있도록 隨證用藥하는 「活套針線」을 加하여 『證脈方藥合編』을 편찬한 이후, 『方藥合編』을 이용하는 醫家들은 모두 이 「活套針線」에 따라 처방을 운용하고 있다[3].

2) 虛勞

虛勞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虛라는 것은 皮毛·肌肉·筋脈·骨髓·氣血·津液 등이 부족해진 것이다. 대체로 음식을 먹는 것이 줄고, 정신이 혼미하며, 遺精과 夢泄이 있고, 허리와 등, 가슴과 옆구리의 筋骨이 땅기면서 아프며, 潮熱이 나고 저절로 땀이 나며, 痰이 성하고 기침이 나는 것은 허로증의 보통 증상이다. 피부가 허하면 열이 나고, 맥이 허하면 잘 놀라며, 살이 허하면 몸이 무겁고, 힘줄이 허하면 땅기며, 뼈가 허하면 아프고, 골수가 허하면 몸이 늘어지고, 腸이 허하면 설사를 한다. 三陽經이 實하고 三陰經이 虛하면 땀이 나지 않고, 三陰經이 實하고 三陽經이 虛하면 땀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상을 언급하였고, 그 원인에 대하여 "虛損의 병증은 寒熱邪가 虛勞한 틈을 타고 침범한 것이다. 虛勞한 데다가 寒邪에 감촉되면 陽氣를 손상시키고, 陽氣가 虛하게 되면 陰氣가 盛해지므로 虛損의 병증이 위에서 아래로 傳變된다. 이때에 맵고 달고 담박한 성질의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데, 병증이 胃를 지나 하부로 내려갔다면 치료할 수 없다. 虛勞한 데다가 熱에 감촉되면 陰氣를 손상시키고, 陰氣가 虛하게 되면 陽氣가 盛해지므로 허손의 병증이 아래에서 위로 傳變된다. 이때는 쓰고 시고 짠 성질의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데, 병증이 脾를 지나 상부로 올라갔다면 치료할 수 없다. 위에서 아래로 전변되는 경우, 一損의 병증은 肺에서 나타나므로 피부가 쪼그라들고 모발이 빠진다. 二損의 병증은 心에서 나타나므로 血脈이 虛少하여 五臟六腑를 영양하지 못하고, 부인은

1) 黃度淵, 脈證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2005, pp. 74-75.
2) 김형태, 方藥合編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 1-2.
3) 김형태, 方藥合編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 24-25.

월경이 통하지 않는다. 三損의 병증은 胃에서 나타나므로 음식의 精微로운 氣가 肌膚를 자양하지 못한다. 아래에서 위로 전변되는 경우, 一損의 병증은 腎에서 나타나므로 骨이 연약하고 무력하여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二損의 병증은 肝에서 나타나므로 筋이 이완되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三損의 병증은 脾에서 나타나므로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다. 『論』에서는 '心과 肺가 손상되면 얼굴빛이 나빠지고, 肝과 腎이 손상되면 몸이 약해지며,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면 脾가 손상된 것이다. 이런 증상은 다 虛損의 병증인데, 점차 심해져서 다 虛勞病이 된다'고 하였다. 대체로 여러 가지 병과 積聚는 다 虛勞에서 생기고, 虛勞는 百病을 낳는다. 사람들은 백병이 心에서 생기는 줄만 알지 百病이 腎에서 생기는 줄은 모른다. 술을 과음하고 고기를 배불리 먹은 다음 방사를 행하여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정기를 손상시키면 腎水가 고갈되어 心火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心火가 멋대로 타올라 肺金을 손상시키면 腎水의 근원이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肺金과 腎水가 쇠약해지면 肝木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되고, 肝木이 왕성해지면 脾土를 억눌러서 도리어 火를 생하게 하나니, 火가 홀로 왕성하면 生化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陽은 有餘하고 陰은 不足해져서 熱만 성하므로 오래 살지 못한다.[4]"고 하여 虛勞는 虛損이 심해져서 오는 것으로 많은 병들이 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心과 腎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證脈方藥合編·活套針線』의 虛勞門에서는 그 양상은 陰虛·兩虛·陰陽虛·心虛·肝虛·脾虛·腎虛 등으로 다양한데, 그 중 心臟이 虛하고 血氣가 부족하여 허로가 된 것이 心虛性 虛勞로 여기에는 古庵心腎丸·究原心腎丸을 쓴다[5]고 하여, 心虛에 의한 虛勞이지만 心腎을 동시에 치료하는 心腎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2. 心腎의 상호관계

1) 心腎의 상호관계

⑴ 心陽과 腎陰의 水火旣濟

心은 五行에서 火에 속하고 上焦에 위치하며 그 性은 動을 主하므로 陽(火)을 爲主로 한다. 腎은 五行에서 水에 속하고 下焦에 위치하며 그 性은 靜을 主하므로 陰을 爲主로 한다. 陰陽 水火의 升降理論으로부터 볼 때 아래에 위치한 것은 위로 上升하는 것을 順으로 하고, 위에 위치한 것은 아래로 내리는 것을 和로 한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上升이 極에 달하면 下降하는데 下降하는 것을 天(天氣)이라 하고, 下降이 極에 달하며 上升하는데 上升하는 것을 地(地氣)라 한다. 天氣가 下降하면 氣가 땅에서 흐르고, 地氣가 上升하면 氣가 하늘에서 蒸騰한다."[6]고 하였으니, 이는 우주의 현상으로부터 陰陽·水火의 升降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인체는 정상적인 생리상황에서 心火가 반드시 腎에 내려와서 腎陽을 도와 腎陰을 共同으로 溫照하여 腎水가 寒하지 않게 한다. 腎水는 반드시 위로 心에게로 가서 心陰을 도와 心陽을 共同으로 濡養하여 心陽이 亢盛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서 心腎 사이의 생리기능은 調和를 이루게 되며, 이런 현상을 가리켜 '心腎相交' 또는 '水火旣濟'라고 한다[7].

불의 성질은 타오르고 물의 성질은 아래로 잠기므로 물과 불이 만나는 것은 자연의 本性이다. 인체는 이와 반대로 물이 아래에 있고 불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물과 불이 서로 만나서 坎離가 旣濟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체의 坎水가 眞陽 가운데에 있어서 眞陽이 발동하면 坎水가 上升하고, 離火가 작용하면 心火가 내려와서 腎水와 만나며, 또 중앙에 위치한 脾土의 鼓動이 水火·氣血을 運行시켜 주어 升降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8].

『外經·心火』에서는 "무릇 水火는 서로 克하지

4) 허준, 동의보감 잡병편,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p. 2159-2161.
5) 黃度淵, 脈證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2005, pp. 74-75.
6) 程士德, 素問注釋滙粹(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219.
7)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 99.
8) 김충렬 외, 周易과 中國醫學(下), 서울, 법인문화사, 1995, p. 326.

않는 것이 없는데 心腎의 水火는 어찌하여 相交하면서 相濟하는가. 水는 다 같지 않도다. 腎中의 邪水는 心火를 가장 克하지만 腎中의 眞水는 心火를 가장 養한다. 心中의 液은 즉 腎內의 眞水이다. 腎의 眞水가 왕성하면 心火가 편안해지고 腎의 眞水가 衰해지면 心火가 끓어오른다. 그래서 心腎이 서로 交하면 水火가 旣濟하고, 心腎이 열리어 交하지 않는다면 水火가 未濟한다."[9] 고 하였다.

병리적인 상황에서 心火가 腎에 내려오지 못하여 혼자서 亢盛하게 되거나 혹은 腎水가 위로 心에게로 가서 凝集하지 못한다면 心腎 사이의 생리기능이 調和를 잃어버려 일련의 병리적인 표현이 있게 되며, 이를 가리켜 '心腎不交' 혹은 '水火失濟'라고 부른다. 임상에서는 失眠을 주증으로 하는 心悸·怔忡·心煩·腰膝酸軟 혹은 남자의 遺精, 여자의 夢交 등의 증상은 대부분 心腎不交에 속한다.

心腎의 상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心陽과 腎陰의 '水火旣濟' 혹은 '心腎相交'이다. '心腎相交'의 이론은『內經』에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에 기재된 陰陽·水火升降說은 後世의 의가들이 '心腎相交' 이론을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宋의 朱佐는『類篇朱氏集驗醫方』에서 "무릇 腎水는 上升하여 心臟에 물을 대려고 하고, 心火는 下降하여 腎臟을 滋養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坎離旣濟하고 陰陽이 調和롭게 된다. 火가 위로 타오르지 않으면 腎은 스스로 맑게 되고, 水가 아래로 스며들지 않으면 靜은 스스로 堅固해진다."[10]고 하였다.

宋의『簡易方』에서는 "勞傷을 잘 調理하는 사람은 그 病이 아직 심하게 깊지 않았을 때 먼저 脾胃를 調理하고 氣海를 安定시키며, 그 다음에 溫潤藥으로 下元을 滋補하고 心神을 安定시키는 藥으로 心氣를 기른다. 心腎의 氣가 서로 만나고 脾胃의 氣가 세진다면 氣血이 점차 생겨나고 病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11]고 하였다.

宋의 嚴用和는『濟生方』에서 心腎不交의 발병원인을 분석하고 "思慮傷心하고 疲勞傷腎하여 心腎不交하면 精元不固한다."[12]고 하였다.

⑵ 心病及腎

『格致餘論·房中補益論』에서는 "사람이 태어남에 心은 火로 위에 居하고, 腎은 水로 아래에 居한다. 水는 능히 上升하고 火는 능히 下降하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면서 끊임이 없으므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水의 體는 靜하고 火의 體는 動하니, 動은 쉽지만 靜은 어렵다. 聖人도 이에 대하여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儒家에서는 가르치기를 正心·收心·養心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火가 妄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醫者는 가르치기를 조용하고 담백하며 허무를 치키고 精神을 안으로 가다듬으라 하였는데, 역시 이 火가 妄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대개 相火는 肝·腎의 陰分에 저장되어 있으며 君火가 妄動하지 않는다면 相火는 오로지 命에 따라 자리를 지킬 뿐으로서 어찌 燔灼의 虐焰이 있을 수 있으며 飛走의 狂勢가 있을 수 있겠는가."[13]라고 하였다. 朱丹溪는 인체에서 '陰氣難盛而易虧'한 것은 바로 "心은 君火로 사물에 感하면 쉽게 動하니, 心動하면 相火가 또한 動하고 動하면 精이 스스로 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그는 섭생에서 收心養心·去慾主靜의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치료에서는 滋陰降火를 주장하였다.

『醫原·內傷大要論』에서는 "대개 七情五勞에서 유독 勞力으로 氣를 傷한 자는 고생으로 인해서이고, 年老하여 虧損한 자는 老衰로 인해서 이다. 이외에는 무엇이나 心火妄動으로 眞陰을 耗散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은 것이 없다. … 相火가 자리를 지키면 病이 생기지 않으며 心君이 이끌

9) 노영균, 外經, 서울, 대동계, 2002, p. 127.
10) 朱邦賢, 中醫學三百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 70.
11) 東醫科學院, 醫方類聚,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514.
12) 朱邦賢, 中醫學三百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 71.
1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譯釋 丹溪醫論, 서울, 대성문화사, 1993, p. 131.

어서 動하게 한다면 즉, 病이 생긴다. 房勞로 인하여 動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人事의 煩勞함이 모두 動하게 이끈다. 動하게 되면 곧 心病이 생기며, 心病이 생기면 곧 神病이 생기며, 神病이 생기면 곧 形病이 생긴다."[14]고 하였다. 그는 이른바 心·神·形의 病變에 대하여 "글을 읽는 것으로 심하게 답답하고 혹은 갖은 방법으로 머리를 짜낸다면 心神이 한시도 안정될 때가 없고 心體는 편안하게 섭양할 때가 없으니 이로 인해 君火가 안에서 끓고 眞陰을 태워 神을 傷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精도 傷하게 한다. 陽이 陰에 의탁하지 않고 자기의 陰이 陽을 잠재우지 못한다며 陰虛가 반드시 內熱을 生하게 되고 內熱은 반드시 內燥로 化하게 된다. 脈은 대부분 細澁해지고 심지어는 數澁해지며 혹은 浮弦搏指하는데 모두 陰虛하여 剛으로 化한 象이다. 보이는 證으로는 대부분 驚悸怔忡·心熱盜汗·虛煩不寐이며, 심하면 君火가 相火를 이끌어 動하게 하여 眞陰을 傷하게 되어 乾咳吐血·遺精淋濁·骨蒸潮熱 등의 諸證이 무더기처럼 발생하게 된다. 이 역시 위로부터 아래를 傷하는 것으로 心病이 腎에 미치는 것이다. 治法으로는 반드시 甘凉한 것으로 陰과 血肉을 기르는 여러 약제를 써서 精液을 보충해야 한다. 예를 들면, 補心丸·固本元·復脈湯·生脈散·三才丸·六味地黃湯·二至丸·二仙丸 등과 같은 약을 그 輕重에 따라 사용한다. 이른바 精이 不足한 자는 味로써 補하며 특히 安心하고 조용하게 섭양해야 한다. 後天의 眞陰으로 先天의 眞陽을 갈무리하여 心陽으로 하여금 아래로 腎과 만나게 하고, 腎陽으로 하여금 위로 心과 만나게 하여 陰이 고르게 되고 陽이 잠재워진다면 克하는 가운데 補益이 있게 된다."[15]라고 하였다.

⑶ 腎病及心

만약 오랜 질병으로 陰을 傷하거나 혹은 房勞로 精을 消耗하였을 경우 腎水가 不足하고 人體의 음양균형이 기울어 陰이 陽보다 적어지며 眞陰이 모자라서 위로 心에까지 이르지 못하므로 虛火가 上浮하면서 질병이 발생한다.

張介賓의 『景岳全書·虛損』에서는 "腎水가 虧하여 心神이 不交하면 神色이 敗한다."[16]고 하였다. 즉, 虛損이 심하게 되면 驚悸失志·心神恍惚·肌肉盡削 등 위독한 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周學海의 『讀醫隨筆·卷四』에서는 "脾陽이 不足하고 下焦에 寒이 盛하면 자연히 心氣가 下陷하고 腎氣는 위로 心을 능멸하게 되니 이것은 風寒이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內虛한 것이다. … 또한 寒冷하거나 消化하기 힘든 음식을 먹고 앉거나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므로 中焦의 氣를 막으면 스스로 脾陽을 손상시켜 결국 水飮이 膈上으로 넘치게 되어 心氣가 上升하지 못하고, 갑자기 心大動하고 怔忡嘈雜하며 … 昏厥不省人事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즐겁지 않거나 혹은 홀연히 氣悶하고 핍박을 받아 어찌할 도리가 없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애원하며, 크게 喘息하면서 大汗하고, 찢어질 듯한 胸痛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心火가 不揚하여 水氣가 달려든 驗證이다."[17]고 하였다.

陣士鐸의 『辨證錄』에서는 "사람이 晝夜로 자지 못하여 마음이 심하게 躁煩한 것은 心腎不交이다. 대저 낮에 자지 못하는 것은 腎이 心과 만나지 못해서이고, 밤에 자지 못하는 것은 心이 腎과 만나지 못해서이다. 지금 낮이나 밤에 모두 자지 못하는 것은 心神이 너무 만나지 못해서 이다. 心腎이 만나지 못하는 것은 心이 너무 熱하고, 腎이 너무 寒하기 때문이다. 心은 본래 火에 속하며 너무 熱하면 火가 炎上하여 아래로 腎과 만나지 못하며, 腎은 본래 水에 속하며 너무 寒하면 水가 沈下하여 위로 心과 만나지 못한다. 그리하여 治法은 心의 熱한 것을 熱하지 않게 하고, 腎의 寒한 것을 寒하지 않게 하여 서로 이끌어서 스스로 兩者가 相合하게 한다. 처방은 上下

14) 朱邦賢, 中醫學三百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 72.
15) 朱邦賢, 中醫學三百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 72.
16)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정담, 1999, p. 303.
17) 周學海, 讀醫隨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 p. 148.

兩濟丹을 쓴다. 대저 黃連은 凉心하고 肉桂는 溫腎하니 두 약을 함께 쓰면 본래는 心腎을 경각에 서로 만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補藥으로 보완시켜 주지 않으면 熱한 것이 너무 燥하게 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 寒한 것이 너무 凉해지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熟地·人蔘·白朮·山萸로써 서로 유익하게 하면 交接할 때에 刻削의 고통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歡愉의 慶事가 있게 된다.[18]"고 하였다.

⑷ 腎陽(命門火)과 心陽(心火)의 관계

腎은 先天之本이며 안에는 元陰과 元陽이 들어있다. 腎陽은 인체의 五臟六腑에 모둔 溫照작용을 하며 인체생명활동의 원동력이다. 생리적인 상황에서 心陽은 腎陽의 溫照작용에 의존하며 命門火가 충족하면 心陽도 왕성하고 혈류도 순환이 잘되며 혈류가 잘 순환되는 것은 또 腎陽을 充養시킨다. 반대로 命門火가 衰하게 되면 心陽의 不足을 초래하며 血流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된다. 만약 心陽이 虛하여 心主血脈의 기능이 약해져 血流가 잘 흐르지 못하면 또 命門火에 영향을 주어 命門火가 날로 衰微하게 되며 임상에서 心陽虛와 腎陽虛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19]. 心腎의 陰陽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므로 心이나 腎에 病이 발생하였을 경우 늘 서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腎陽虛의 경우에 水氣가 上泛하여 心을 능멸하는 '水氣凌心'의 證을 볼 수 있다.

2) 心腎의 病理[20]

⑴ 心腎陽虛證

'心腎陽氣不足證'이라고도 한다. 心腎의 陽氣 손상으로 溫照·行血·氣化작용이 되지 않아 血行이 지체되고 水液이 정체되는 證으로 心病·腎虛水泛·陽虛寒象의 세 가지가 나타나야 한다.

본증은 勞倦內傷·年老藏氣衰微·久病으로 생긴다. 心이 濡養을 잃어 心悸·怔忡·정신피로 등이 나타나고, 胸陽이 쇠약하여 胸悶·氣短 증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腎陽도 부족하므로 氣化작용이 되지 않아 水氣가 내부에 정체되면 小便不利하고 顔面이나 手足에 浮腫이 나타난다. 腎陽은 전신 陽氣의 근본이므로 肢體를 溫照하지 못하면 形寒肢冷이 나타나며, 氣血운행이 무력하여 입술과 손발톱과 舌質이 淡紫色을 띠며, 水가 넘치므로 舌苔가 白滑하다. 脈沈微도 氣血운행이 무력하기 때문이다.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水腫·驚悸·怔忡·胸痺 등이 있다.

心腎陽虛證과 陽虛證을 비교하여 보면, 形寒肢冷·自汗·倦怠無力의 공통증상이 있지만, 心腎陽虛證은 心悸短氣·尿少身腫이 주가 되는 반면, 陽虛證은 少氣懶言·面色淡白·小便淸長·大便薄이 나타난다.

心腎陽虛證과 心陽虛證을 비교하여 보면, 心悸怔忡·外寒肢冷의 공통증상이 있지만, 心腎陽虛證은 尿少身腫·喘促腰痠·苔白滑이 있으며, 心悸怔忡·外寒肢冷 등의 증상이 心陽虛證보다 엄중하고, 脣甲靑紫·舌質靑紫暗淡 등을 볼 수 있는 반면, 心陽虛證은 心기능의 쇠퇴로 溫照작용을 잃어서 생기는 心悸·心痛·胸悶氣短·形寒肢冷 등이 그 주된 증상이다.

⑵ 心腎不交證

水火不濟證이라고도 한다. 腎水가 心火를 견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心火가 腎水와 교통하지 못하여 水火의 평형상태를 상실한 證으로, 心火亢盛과 心神不寧이 腎陰不足 증상과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심한 不眠과 熱象을 가지면서 腎虛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확진한다. 房事不節·勞心過度· 溫燥藥劑를 과다 복용한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心火가 하부의 腎水를 溫養하여 腎水가 차지 않게 하고, 腎水가 상부의 心火를 濡養하여 心火가 亢盛하지 않게 하는 등 水火互濟·心腎相交한다. 그러나 일단 腎水가 부족하면 心火를 적셔주지 못하므로 상부에서 偏亢하거나, 또는 心火가 熾盛하여 하부의 腎水를

18) 陣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 218.
19)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 99.
20) 전국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東醫病理學, 서울, 일중사, 1999, pp. 580-583.

빨아들이면 陰이 하부에서 소모되어 腎水가 虧損되고, 心火가 상부에서 熾盛하는 心腎水火不濟의 병변이 형성된다.

心火가 亢盛하면 心煩不眠·心悸不安·健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腎水가 부족하면 腦髓를 滋養하지 못하므로 眩暈·耳鳴·腰膝酸軟이 나타난다. 陰이 虛하여 內熱이 발생하면 五心煩熱이 나타나고, 君火·相火가 上炎하면 口燥·咽乾이 있으며, 火가 精室을 요동하면 遺精·帶下가 발생한다. 陰虛內熱은 虛熱이며, 心火亢盛은 實熱이므로 본 증은 虛實挾雜證에 속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驚悸·怔忡·不寐 등이 있다.

心腎不交證과 腎陰虛證을 비교하여 보면 眩暈耳鳴·腰膝酸軟·五心煩熱·潮熱盜汗·健忘少眠·尿黃便乾의 공통증상이 있지만, 心腎不交證은 心煩驚悸가 있는 반면, 腎陰虛證은 心火증상이 없다.

3. 心腎의 치료

1) 水升火降

劉完素의『素問玄機宜保命集』에서는 "대개 天一地二로서 北辨하고 南交하여 精神의 運行에 入하므로 行한다. 象으로 표현한 즉 水火요, 卦로서 나타낸 즉 坎離니, 兩者가 相須함이 六合에 가득하면 萬物을 얻게 하니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떠하겠는가. … 天地가 理致에 順應하여 陰陽이 交構하고 坎離가 濟用하니 水火가 그 氣를 서로 交流하는 바가 된다."[21]고 하였다.

水火升降에 대하여 李東垣의『格致餘論』에서는 "心은 火가 되어 上에 居하고 腎은 水가 되어 下에 去하니, 水는 升할 수 있고 火는 降할 수 있어 一升一降하여 無有窮已"[22]라 하였고, 氣血升降에 대하여『局方發揮』에서는 "氣는 陽이 되니 마땅히 降하고, 血은 陰이 되니 마땅히 升한다. 一升一降하여 偏勝됨이 있지 않으면 이를 平人이라 한다."[23]고 하였다.

張景岳은 陰陽互根의 관계를 설명하면서『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歸精 … 精化爲氣"의 논술을 바탕으로 精氣互根의 중요성을 강조하여『景岳全書』에서 언급하기를 "補虛之法은 단지 그 陰陽升降과 寒熱溫凉의 性과 精 가운데 氣가 있고 氣 가운데 精이 있다는 因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또 上焦의 陽氣가 不足한 자는 반드시 腎에서 下陷한 것이니 마땅히 至陰의 下에서 取하고, 下焦의 眞陰이 不足한 자는 上에서 飛越한 것이 많으니 引하여 歸源한지 않겠는가. 써 治는 반드시 本에서 구한다."[24]고 하여 上의 陽氣와 下의 陰精의 升降을 중요시하였으니 陰中에서 陽을 구하고 陽中에서 陰을 구하는 治法은 後世 虛損病 치료의 규범이 되었다[25].

『景岳全書』에서는 "사람이 天地의 氣를 얻어 生이 있는데, 生이 있게 하는 氣는 陽氣이니, 陽이 없으면 生이 없으므로, 무릇 스스로 生하여 長하고 스스로 長하여 壯함은 陽氣가 主가 되지 않음이 없고 精血이 모두 그 化生이다. 그러므로 陽盛하면 精血이 盛하고, 陽衰하면 精血이 衰하고 生氣가 衰한다"[26]하여, 丹溪의 陽有餘陰不足으로 인하여 후세 의가들이 寒凉藥을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여 '陽常不足 陰常有餘'를 주장하였다[27]. 그리하여 命門을 人身의 太極이라 인식하고 "命門은 地를 象하여 消長의 樞紐가 된다."[28]고 하여 命門을 陰陽水火消長의 樞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命門에 生氣가 있는 것이 곧 乾元의 不息의 機이니, 生이 없으면 곧 息한다. … 오로지 動하고 오로지 升하면 陽이 生氣를 얻음이요, 오로지 靜하고 오로지 降하면 陰이 死氣를 얻음이다."[29]라고 하여 命門에서 시작한 元陽之氣의 上升을 중요하게 여겼다. 치료면에서는

21)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성보사, 1976, p. 13.
22)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3, p. 506.
23)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3, p. 521.
24)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한성사, 1983, p. 304.
25) 裘沛然,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349.
26)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한성사, 1983, p. 16.
27) 裘沛然,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350.
28) 張介賓, 類經圖翼(附類經附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 271.
29)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한성사, 1983, p. 15.

溫補立論을 바탕으로 溫補之劑인 人蔘으로 補陽하고 熟地黃으로 補陰하였는데, 특히 命門 中 陰分의 不足에는 左歸丸, 陽分의 不足에는 右歸丸을 사용하여 後天 眞陰眞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0].

李仲梓의 『醫宗必讀·水火陰陽論』에서는 "天地造化의 氣는 水火일 뿐이니 마땅히 平하게 해야지 偏하면 안 되고, 交해야지 分하면 안 된다. 火性은 炎上하므로 下하게 해야 하고, 水性은 就下하므로 上하게 해야 한다. 水上火下를 이름하여 交라고 한다. … 交라는 것은 生의 象이고 不交라는 것은 死의 象이므로, 큰 가뭄에 사물이 生하지 못하니 火가 偏盛한 것이고 큰 장마에 사물이 또한 生하지 못하니 水가 偏盛한 것이다[31]라고 하여, 水火의 平衡을 강조하였다.

黃元御는 "木性은 發散하는데 金氣로써 수렴하면 木이 과도하게 散하지 않고, 火性은 升炎하는데 水氣로써 伏하게 하면 火가 과도하게 炎하지 않고, 土性은 濡濕하는데 木氣로써 疏하면 土가 과도하게 濕하지 않고, 金性은 收斂하는데 火氣로써 溫하게 하면 金氣가 과도하게 收하지 않고, 水性은 降潤하는데 土氣로써 滲하면 水가 과도하게 潤하지 않으니 모두 氣化하는 自然의 妙다."[32]라고 하였다.

何夢瑤의 『醫碥』에서는 "腎水는 命門의 火를 얻어 蒸하는 바로 化氣하여 上하면 肝이 이를 받아 升騰하므로 肝은 時에 있어 春이 된다. … 陽氣가 上升하여 心에 이르러 盛하는데 陽盛하면 火가 되므로 心은 火에 속한다. … 肺는 心上에 거처하며 時에 있어서는 秋가 되고 象에 있어서는 金이 된다. 金性은 沈降하여 秋氣는 斂肅하므로 陽氣가 極에까지 升하여 降하는 것은 肺로 말미암아 降한다. … 腎水의 上升은 肝木의 汲引으로 말미암아 地道가 左旋하여 天으로 上하는 것이고, 心火의 下降은 肺金의 斂抑으로 말미암아 天道가 右旋하여 地로 入함이다. 脾는 그 中에 거하여 上下升降의 樞紐가 되니 飮食이 胃에 入하면 脾는 그 氣를 上下內外에 行運하는 것이 土가 四時에 布化하는 것과 같으므로 土에 속한다."[33]고 하였다[34].

2) 古庵心腎丸과 究原心腎丸

『方藥合編』의 「醫方活套」에서 古庵心腎丸은 腎虛有熱·怔忡·盜汗·遺精을 다스리고, 究原心腎丸은 虛勞와 水火不濟로 인한 怔忡·盜汗·遺精·赤濁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活套에 나와 있는 적응증만으로는 古庵心腎丸과 究原心腎丸의 적응증 구분을 할 수 없어 각각 처방의 原著에서의 적응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古庵心腎丸

古庵心腎丸은 『丹溪心法附餘』의 「補損」과 「烏髭髮」에 "論에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질환이 있어 자식이 없는 자가 있었고, 惡이 있어 머리가 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이를 일러 자식이 없는 것은 腎에 책임이고 머리가 흰 것은 心에 책임이라고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 것인가 하면 腎은 精을 主하므로 精이 勝하면 아이를 배는 것이 이루어지고, 心은 血을 主하므로 血이 勝하면 머리가 검어지는데, 요즘에는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하여 本然의 眞이 이지러지고 憂慮가 너무 많아 그 天然의 性을 덜어낸다. 心은 君火이고 腎은 相火로 君火가 動하면 相火가 합하여 그것을 따르고, 相火가 動하면 君火도 또한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서 편안하지 못하게 되니,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르는 道가 있다." 고 하고 "무릇 머리가 흰 것은 古方에 모두 心에 그 책임이 있다 하니, 대개 心이 간직하는 것은 神이고, 神이 붙어있는 것은 血이며, 血을 動하게 하는 바의 것은 火이니, 心火가 動하면 血이 沸騰하고, 血이 沸騰하면 神이 불안해지며, 神이 불안해지면 꿈꾸고 자는 것이 어지러워지고 수염과 머리가 희어진다. 비록 그러하지만 천지

30)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4, p. 257.
31) 李仲梓, 醫宗必讀, 서울, 의원당, 1986, p. 8.
3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 25.
33) 何夢瑤, 醫碥,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2, pp. 3-4.
34) 文聖喆, 升降의 槪念 및 歷代 醫家說에 對한 考察,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 48-71.

간은 陰陽五行에 불과할 뿐이니, 五行에는 相生하는 것이 있고, 相制하는 것이 있다. 지금 心火가 上炎한 것은 腎水가 이지러져서 제어할 수 없기에 그러한 것이므로, 이 머리가 흰 것은 心 때문만은 아니다. 무릇 자식이 없는 것은 古方에 모두 腎에 그 책임이 있다하니, 대개 腎이 간직하는 것은 精인데, 精이 가득하면 자식이 있고 精이 이지러지면 후손이 결핍되는 것뿐이다. 지금 腎精을 망령되이 흘리는 것은 心火에 핍박받아 그러한 것이므로 이 자식이 없는 것은 腎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비록 영민하지 못하지만 조잡하나마 一方을 갖추어 補血生精하고 寧神降火하니 거의 兼治할 것이다.

法에 이르기를 心은 熱을 싫어하고 腎은 燥를 싫어한다 하였다. 이 方은 補精·益血·淸熱·潤燥하여 心腎을 치료하는 聖藥이니, 髮白과 無子 두 가지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驚悸·怔忡·遺精·盜汗·目暗·耳鳴·腰痛·足痿의 모두 증에 法이 아님이 없다."[35]고 하여 無子와 흰머리에 사용하고 虛勞의 증상에 응용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虛勞에 응용한 문헌은『雜病源流犀燭』이다.『雜病源流犀燭』의「心病源流」에서는 "心과 神은 이어져있으니, 經에 이르기를 心舍脈이라 하였으니 이는 腎經이 主하는 것으로 그 克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主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腎水가 넉넉한 후에야 心火가 융성하고 腎水가 부족하면 반드시 心火上炎하게 되어 心과 腎에 모든 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心에 병이 없을 때에 그것을 기르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本經을 따라서 그 氣를 기르는 것으로 너무 생각하고 뜻을 억제하거나 일이 이르지 않아 쫓거나 일이 이미 지나가서 그리워하여 神明으로 하여금 耗散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心을 너무 쓰게 되면 그 氣를 傷하게 되어, 氣傷하면 아울러 그 精도 傷하여 神이 지켜지게 됨이 없다. 다른 하나는 腎經을 따라서 그 精을 기르는 것으로, 情에 따라 房欲하지 말고 女色을 탐하지 말아야 하니, 相火가 上炎하게 되면 잡아서 견고하게 할 수 없다. 만약 腎을 지키는데 절제가 없다면 그 精을 傷하니 精傷하면 따라서 그 氣를 傷하여 水가 火를 제어할 수 없고 陰이 陽의 집이 될 수 없으므로 水氣가 凌心하게 된다."고 하여 心病의 원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怔忡源流」에서는 "怔忡은 心血이 不足한 病이다. 人이 主하는 바의 것은 心이고 心이 主하는 바의 것은 血이니, 心血이 消亡하고 神氣가 失守하면 心中이 空虛하고 怏怏動搖하여 安寧할 수 없어 無時로 不作하는 것을 이름하여 怔忡이라고 한다"고 하고,「卑慄」에 덧붙이기를 "心血不足의 병이다. 怔忡과 한 종류로 그 증상은 胸中痞塞하고 不能飮食하며 如痴如醉하고 心中이 항상 뜻에 차지 않은 바가 있고(歉) 暗室에 있기를 원하고, 혹은 문 뒤에 기대고, 사람을 보면 놀라서 피하며, 每病이 수년이 되었지만 癲症이 되지 않은 것을 治한다. 天王補心丹·人參養榮湯·古庵心腎丸[36]을 써야 한다."[37]고 하여 腎陰虛로 虛火가 발생하여 心을 요란하게 하는 虛勞症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밝혔다.

⑵ 究原心腎丸

究原心腎丸은『醫學入門』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雜病·雜病提綱·諸虛」에서는 "모든 虛證은 오로지 陰證·陽證을 분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음식량이 적어지고 精神이 흐리고 精液이 간직되지 않고 滑精·遺精이 된다. 腰·背·胸·脇과 筋骨이 아프고, 潮熱·汗出·痰嗽症이 나타나는 것이 그 常例이다. 外因으로 發生한 새로운 虛損證은 회복이 용이하다. 勞心(五勞)과 六慾(六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久虛는 內傷을 이루게 한다. 心腎의 기능을 調和시키며 謙해서 脾胃의 작용을 길러 줄 것이다. 陰陽 어느 것의 損傷을 막론

35) 朱震亨, 丹溪心法附餘(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3, pp. 700-701.

36) 古庵心腎丸 : 熟地 生之 山藥 伏神 三兩, 當歸 澤瀉 黃柏(鹽酒炒) 一兩半, 山萸 枸杞 龜版(酥炙) 牛膝 黃連 丹皮 鹿茸(酥炙) 一兩, 生甘草 五錢, 朱砂(爲衣) 一兩. 蜜丸하고 朱砂로 옷을 입힌다. 空心에 鹽湯이나 溫酒로 삼킨다.

37)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83.

하고 모두 水火가 서로 不濟하기 때문이니, 火降하면 血脈이 화창하고 水升하면 精神이 충만하게 된다. 혹 心腎이 다 虛하게 되거나, 혹 心脾가 다 虛하게 되거나, 혹 心肝이 다 虛하게 되거나, 혹 肺腎이 다 虛하게 되거나, 혹 五臟이 다 虛하게 되었거든 다만 心腎을 調和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겸하여 脾胃를 補하면 飮食을 먹으면서 精神氣血이 自生하게 된다."고 하여 心腎에 문제가 발생한 虛證에 究原心腎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雜病·雜病提綱·沈寒痼冷」에서는 "沈寒과 痼冷에는 氣血을 大補하고 脾胃를 데워주어야 한다. 人身의 眞陽이 耗散하고 脾胃가 虛弱한데 生冷物을 먹으며 좋아하는 욕심을 과도하게 하여 써 五臟六腑에 寒이 정류하여 흩어지지 않게 된 것을 '沈寒'이라 하고, 寒보다 더한 冷이 쌓여서 풀어지지 않게 된 것을 '痼冷'이라 한다. 남자는 遺精이 발생하고 여자는 崩帶가 발생하며 혹 吐瀉를 하는 奇疾이 발생한다. 遺精에는 金鎖正元丹·究源心腎丸·硫苓丸을 쓴다."고 하여 寒에 의하여 발생한 遺精에 究原心腎丸을 응용한다고 하였고, 「雜病·雜病分類·火類·夢遺」에서는 "젊었을 때 욕심이 과하여 陽脫者는 究源心腎丸·靑娥丸·黑錫丹·縮泉丸·金鎖正元丹을 쓰고, 氣陷者는 神芎湯을 쓴다."고 하였다.

「雜病·雜病用藥賦·諸虛」에서는 "五臟六腑의 諸虛證에 쓰는 丸丹은 능히 水火를 相交하여 거듭 만나게 한다."고 하면서 究原心腎丸의 처방[38]을 제시하여 腎陽虛에 의하여 腎이 心에 火를 공급하지 못하는 虛勞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밝혔다.

Ⅲ. 結 論

虛勞는 寒熱邪가 虛勞한 틈을 타고 침범한 것으로 皮毛·肌肉·筋脈·骨髓·氣血·津液 등이 부족해진 것이다. 대체로 음식을 먹는 것이 줄고, 정신이 혼미하며, 遺精과 夢泄이 있고, 허리와 등, 가슴과 옆구리의 筋骨이 땅기면서 아프며, 潮熱이 나고 저절로 땀이 나며, 痰이 성하고 기침이 나는 것은 허로증이다. 이러한 병은 心과 腎의 精氣가 손상되어 나타난다.

藏神을 하는 一身의 主인 心과 藏精을 하는 腎은 『周易』의 離卦와 坎卦의 의미로 각각 인체의 火와 水가 되어, 水火交濟를 하여 水升火降을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이 정상적인 心腎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病이 생기는데, 心虛에 의하여 腎에 영향을 받고 怔忡·盜汗·遺精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方藥合編』에서는 古庵心腎丸과 究原心腎丸을 사용하였다.

古庵心腎丸은 髮白·驚悸·怔忡·遺精·盜汗·目暗·耳鳴·腰痛·足痿가 있거나, 心血不足으로 怔忡과 같이 그 증상은 胸中痞塞하고 不能飮食하며 如痴如醉하고 心中이 항상 뜻에 차지 않은 바가 있고 (歉) 暗室에 있기를 원하고, 혹은 문 뒤에 기대고, 사람을 보면 놀라서 피하며, 每病이 수년이 되었지만 癲症이 되지 않은 「卑慄」을 治한다.

究原心腎丸은 음식량이 적어지고 精神이 흐리고 精液이 간직되지 않아 발생하는 滑精·遺精, 腰·背·胸·脇과 筋骨이 아프고, 潮熱·汗出·痰嗽症이 나타나는 것, 沈寒痼冷으로 인한 遺精, 젊었을 때 과욕에 의한 陽脫 등을 治한다.

총괄하자면 虛勞에서 心腎을 調和함에 虛中有熱한 자는 古菴心腎丸, 虛中有寒한 자는 究源心腎丸을 쓴다.

38) 究原心腎丸 : 牛膝 熟地 肉蓯蓉 鹿茸 附子 人蔘 遠志 伏神 黃芪 山藥 當歸 龍骨 五味 一兩 菟絲子(浸酒) 三兩. 煮하여 糊丸하기를 梧子大로 하여 매번 50환을 空心에 棗湯으로 삼킨다.

참고문헌

1. 黃度淵, 脈證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2005.
2. 김형태, 方藥合編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 허준, 동의보감 잡병편, 서울, 법인문화사, 2005.
4. 송점식, 의학집요, 서울, 효림, 1991.
5. 李龍植, 心腎의 相互關係에 대한 東西醫學

的 硏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6. 程士德,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譚一松·何文彬, 文白對照靈樞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8. 唐宗海, 醫易通說,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1989.
9. 韓南洙, 석당한의학, 서울, 국제문화사, 1985.
10.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11. 김충렬 외, 周易과 中國醫學(下), 서울, 법인문화사, 1995.
12. 노영균, 外經, 서울, 대동계, 2002.
13. 朱邦賢, 中醫學三百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14. 東醫科學院, 醫方類聚, 서울, 여강출판사, 1994.
15.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譯釋 丹溪醫論, 서울, 대성문화사, 1993.
16.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정담, 1999.
17. 周學海, 讀醫隨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
18. 陣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19. 전국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東醫病理學, 서울, 일중사, 1999.
20.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성보사, 1976.
21.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3.
22.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한성사, 1983.
23. 裘沛然,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4. 張介賓, 類經圖翼(附類經附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8.
2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4.
26. 李仲梓, 醫宗必讀, 서울, 의원당, 1986.
2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8. 何夢瑤, 醫碥,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2.
29. 文聖喆, 升降의 槪念 및 歷代 醫家說에 對한 考察,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
30. 朱震亨, 丹溪心法附餘(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3.
31.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